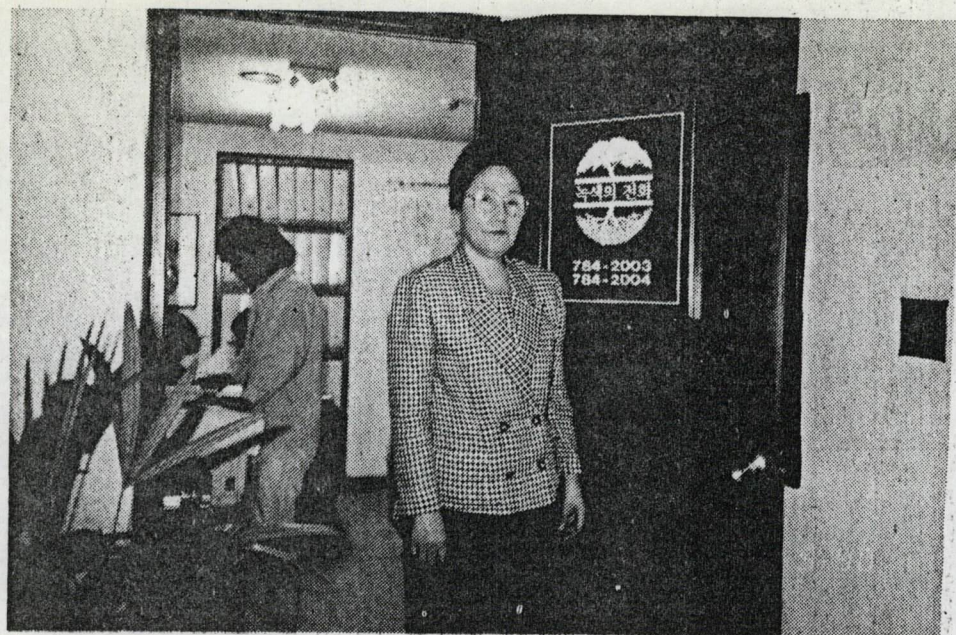




「녹색의 전화」를 개설한 朴英淑 평민 부총재가 상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9.27.3예신문

#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 상담실 개설한 朴英淑 평민당부총재

## 환경보존의 파수꾼은 주부와 女性임무 피해자 사례모집

지난 8월 28일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는 여의도 백인회관 2층에서 환경문제 상담실 「녹색의 전화」를 개설한다. 「녹색의 전화」는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오염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각시화됨에 따라 전국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환경 파괴에 대한 피해 상담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주에서 환경보존 우선주의로 전환하였는데 우리는 이제 늦은 감이 있지요. 그러나 환경보존 우선주의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상충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녹색의 전화」는 그것을 얻기 위해 개설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법인으로 인정된 환경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 는 각오로 임하지만 앞으로 무척 힘이들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朴 부총재는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은 국정활동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환경관계 법안의 발의와 서울시장수장 오임, 연탄공장주변의 진폐중화지, 원전문제 인천해안오염 등을 통해 환경조사 활동을 벌여왔다.

「우리의 산업화가 이제 30년으로 접어들면서 누적된 공해문제가 실제 생활에 드러나는 거지요. 많은 사례들이 피해를 위한 법적 제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우리 「녹색전화」팀은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결방법을 찾는 일에 활동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녹색의 전화」가 하는 일은 환경오염예방, 환경오염피해구제,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설치·유형 등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받고 있으며 상담 내용에 따라 현지조사,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상담실의 후속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담 내용의 처리결과를 회신해 주고 있다.

현재 「녹색의 전화」팀은 박 의원이 국회에서부터 팀원을 이루었던 전문가, 법률가, 자원봉사자들이 협력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이고 아직 아무 기금도 없으며 「녹색의 전화」 활동이 활성화되면 후원위원회를 발족시켜 회원을 공개모집할 것이라고 한다.

朴 부총재는 이번엔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것은 기업과 행정부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절실하지 못하며 기업인과 행정부의 자각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모든 환경오염은 국민이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다른 것에 비해 공해만은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충분히 실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국민은 공해를 만들지 않는 일, 기업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일, 정부는 환경보존정책을 시급히 시행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고 하며 특히 「환경보존의 파수꾼은 여성들이며, 그중에서도 주부들이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난히 수순한 오차란과 일에 전념하느라 흐트러진 머리무세를 바로 잡는 朴 부총재의 모습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했다.

〈李英淑 記者〉

90.9.27.3예신문.